

텍스트 이해에서 선행 지식의 역할과 한계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행위를 넘어, 독자가 지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내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선행 지식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필수적인 틀로 작용한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비어 있는 백지상태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축적된 인지적 구조를 매개로 새로운 대상을 이해한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독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풍부할수록 텍스트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을 강화하는 해석학적 개념이 ‘해석학적 순환’이다. 이는 텍스트의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하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독자는 자신의 ㉡인지적 도식—즉 세계에 대한 지식을 조직하고 저장하는 내면의 구조—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들을 연결하고 전체적 의미를 가설적으로 구성한 뒤, 다시 그 가설을 바탕으로 개별 문장의 의미를 확정한다. 이 순환적 과정에서 선행 지식이 견고할수록 독자는 텍스트의 빈틈을 메우고 생략된 전제를 추론하는 데 유리해진다.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접하는 텍스트는 단순한 기호의 나열에 불과하며,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되지 못한다.

그러나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선행 지식의 역할을 절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텍스트가 실제로 진술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자신의 선입견을 텍스트에 투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철학이나 논리학과 같이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텍스트에서는, 저자가 일상적 용법과 다르게 개념을 엄밀하게 재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독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면, A개념의 속성을 B개념에 잘못 부여하는 ㉢범주 오류를 범하게 된다. 개념 간 경계를 엄격히 설정하는 학술 지문에서는 독자의 사전 지식이 오히려 치명적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 이해의 본질은 외부 지식의 동원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를 정확히 추적하는 데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잘 구성된 학술 지문은 독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텍스트 자체에 제시된 개념의 정의와 논증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텍스트는 자체적인 자율성을 지니며, 그 안에서 개념들은 서로 일정한 위계와 관계를 맺으며 논리적 그물망을 형성한다. 따라서 독해의 핵심은 텍스트 외부에서 지식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에서 설정된 규칙과 조건에 기계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평가자가 요구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도가 아니라 텍스트가 제시한 추상적 잣대를 낫선 상황에 오차 없이 적용하는 사고력이다.

물론 이러한 반론이 선행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적 축적이 아니라, 다양한 텍

스트를 읽으며 글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접근 경험이다. 특정 분야의 글은 비슷한 논리적 구조와 전개 방식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제 지문은 개념 제시, 원리 도출, 문제 발생, 해결 모색의 과정을, 철학 지문은 개념 정의, 관점 교차, 모순 탐색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다. 이러한 구조적 패턴에 익숙한 독자는 낯선 개념이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텍스트 이해에서 배경지식의 역할은 텍스트의 의미를 미리 고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가 제시하는 낯선 개념과 논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독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독자는 자신의 선행 지식을 텍스트에 투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텍스트 내부의 논리에 자신을 개방하고 그 규칙에 순응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배경지식은 텍스트를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텍스트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내면의 체력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밑줄 친 ㉠은 독자가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를 연결하여 전체적 의미를 가설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생략하고 있는 전제를 추론하는 데 기여한다.
- ② 밑줄 친 ㉡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텍스트가 실제로 진술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입견을 투영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가리킨다.
- ③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잘 구성된 학술 지문은 독자의 외부 지식 동원 없이도 텍스트 자체의 논증 전개 과정만으로 의미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을 지닌다.
- ④ 밑줄 친 ㉣은 특정 분야의 글이 반복적으로 거치는 구조적 패턴에 익숙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낯선 개념이 등장하더라도 텍스트의 의미를 미리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윗글은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배경지식이 텍스트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내면의 체력으로 기능할 때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보며, 선행 지식의 양적 축적 자체가 지니는 적극적 가치를 부정한다.

2.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틀로 기능하지만, ㉡와 같은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 추적을 통해 ㉣의 편향을 보정해야 한다.
- ② ㉠은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를 연결하여 전체적 가설을 구성하는 매개체이지만, ㉠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 제시한 자율적 규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③ ㉡는 ㉠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개념 간 경계를 무시할 때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의 우선적 파악이 요청된다.
- ④ ㉢는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로서 ㉠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를 통해 형성된 구조적 패턴 인식과 결합될 때 ㉣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 ⑤ ㉢는 ㉠의 양적 축적을 넘어 ㉣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경험으로서, ㉡를 유발하는 ㉢의 기계적 적용을 제어하고 텍스트에 대한 개방성을 촉진한다.

3.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 제시된 독해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해 상황]

독자 '갑'은 경제학 지식이 풍부하여, '수요 곡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텍스트를 읽을 때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개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해당 텍스트는 일반적인 미시경제학 교과서와 달리 '수요 곡선'을 '생산자의 한계 비용 곡선'으로 재정의하며 전개된다. '갑'은 이 재정의된 의미를 텍스트 내부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여 글을 읽어 나갔고, 결과적으로 후속 논증의 전개를 오독하였다.

- ① 독자 '갑'의 사례는 밑줄 친 ㉠이 텍스트의 의미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한계를 보여주므로,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 ② 독자 '갑'의 사례는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윗글이 경고하는 바와 같이 ㉣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의 추적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③ 독자 '갑'이 경제 지문의 반복적인 전개 방식에 익숙했다면 밑줄 친 ㉢의 기능을 통해 ㉢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은 ㉣의 예방 조건으로 기능한다.
- ④ 독자 '갑'의 사례는 밑줄 친 ㉣이 ㉠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윗글이 제시하는 반론은 ㉠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⑤ 독자 '갑'의 사례에서 독해의 실패는 밑줄 친 ㉣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 양적 축적보다는 ㉢의 확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에 의해 그 역할이 전면 부정된다.
- ② ㉣은 텍스트의 전체적 의미를 가설적으로 구성하는 데 활용되지만, ㉠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은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그물망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의 양적 축적보다는 ㉢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 ④ ㉢는 ㉠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하지만, ㉢이 풍부한 독자는 텍스트의 구조적 패턴을 파악하여 ㉡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⑤ ㉢은 특정 분야의 글이 지니는 구조적 패턴에 대한 익숙함임으로, ㉣과 달리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를 연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텍스트 이해에서 선행 지식의 역할과 한계

■ 지문 분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선행 지식의 역할과 한계

■ 개요

이 지문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독자의 선행 지식(배경지식)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절대화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후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를 추적하는 것이 독해의 본질이라는 반론을 제시하며, 선행 지식은 텍스트를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텍스트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내면의 체력으로 기능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결론 내린다.

■ 문단별 분석

1문단 [주제 제시 및 선행 지식의 긍정적 역할(인식론적 관점) 설명]

텍스트 이해는 독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때 선행 지식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필수적인 틀로 작용한다.

2문단 [선행 지식의 유용성을 해석학적 개념으로 강화]

해석학적 순환 개념을 통해 선행 지식이 텍스트의 부분과 전체를 연결하고 생략된 전제를 추론하는 데 유리함을 설명한다. 배경지식이 없으면 텍스트는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

3문단 [선행 지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 지적(논리적 전환)]

선행 지식의 역할을 절대화할 경우 선입견을 텍스트에 투영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학술 지문에서는 외부 지식의 무비판적 적용이 범주 오류나 치명적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4문단 [대안 관점 제시: 텍스트 내부 논리적 체계의 중요성 강조]

텍스트 이해의 본질은 외부 지식 동원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를 추적하는 데 있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잘 구성된 학술 지문은 자체적 자율성을 지니며 내부 논리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5문단 [반론의 한계 설정 및 선행 지식의 올바른 형태(접근 경험) 제시]

내부 논리 강조가 선행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접근 경험이며, 이는 낯선 개념 등장 시 논리적 흐름 파악에 도움을 준다.

6문단 [글의 최종 결론 도출: 선행 지식의 올바른 기능과 태도 정리]

배경지식은 텍스트의 의미를 미리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독자는 텍스트 내부의 논리에 개방하고 순응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선행 지식 (㉠)

독자의 내면에 이미 형성되어 있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필수적인 틀로 작용하는 기존 지식

• 인지적 도식 (㉡)

세계에 대한 지식을 조직하고 저장하는 내면의 구조로,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를 연결하여 전체적 의미를 구성하는 데 활용됨

• 범주 오류 (㉢)

독자가 외부에서 가져온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A개념의 속성을 B개념에 잘못 부여하는 오류

•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 (㉣)

잘 구성된 학술 지문이 자체적으로 지닌 개념의 정의와 논증의 전개 과정 등 텍스트 안에서 형성된 자율적 논리 구조

• 접근 경험 (㉤)

다양한 텍스트를 읽으며 글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해 본 경험으로, 특정 분야 글의 구조적 패턴에 익숙해지게 함

■ 논리적 흐름

선행 지식의 긍정적 역할(1, 2문단) → 선행 지식 절대화의 위험성과 한계(3문단) → 텍스트 내부 논리 체계 중요성 반론(4문단) → 선행 지식의 올바른 형태(접근 경험) 제시(5문단) → 선행 지식의 참된 가치와 독자의 올바른 태도 결론(6문단)

■ 문제 해설

1. 정답 ③

- ▶ 핵심 각 밑줄 친 개념이 지문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지가 문단 간의 내용을 교차하여 왜곡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각 밑줄 친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문단 간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일치 문항이다. 3번 선택지는 4문단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잘 구성된 학술 지문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텍스트 자체에 제시된 논증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텍스트가 지닌 자율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포착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개념의 정의를 혼동하거나(1, 2번), 지문의 결론과 반대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거나(4번),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확장해 해석하여(5번) 오답이다.

[선택지 분석]

- ① × ㉠'선행 지식'이 생략된 전제를 추론하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이를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를 연결하여 전체적 의미를 가설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서술한 것은 ㉡'인지적 도식'의 설명이다. 2문단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지적 도식—즉 세계에 대한 지식을 조직하고 저장하는 내면의 구조—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들을 연결하고 전체적 의미를 가설적으로 구성한 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념 간 혼동이 발생했다.
- ② × 독자가 배경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선입견을 투영하는 상황은 범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또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주 오류'의 정확한 지문적 정의는 아니다. 3문단을 보면 범주 오류는 '저자가 일상적 용법과 다르게 개념을 재정의할 때, 독자가 외부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A개념의 속성을 B개념에 잘못 부여하는 오류'이다. 선택지는 이러한 구체적 발생 기제(개념 속성의 잘못된 부여)를 배제하고 포괄적인 상황만을 나열하여 정의로 제시함으로써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
- ③ ○ 4문단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문은 '잘 구성된 학술 지문은 독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텍스트 자체에 제시된 개념의 정의와 논증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텍스트는 자체적인 자율성을 지닌다'는 서술과 직결된다.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와 관련하여 외부 지식 없이 내부 논증만으로 의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자율성을 올바르게 설명하였다.
- ④ × ㉤'접근 경험'이 특정 분야 글의 구조적 패턴에 익숙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낯선 개념 등장 시 당황하지 않고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5문단에 나오는 맞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미리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명백한 오답이다. 6문단에서 '결국 텍스트 이해에서 배경지식의 역할은 텍스트의 의미를 미리 고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⑤ × 전반적인 맥락은 맞으나, '선행 지식의 양적 축적 자체가 지니는 적극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표현에서 '자체가 지니는 적극적 가치'라는 명시적 단서를 지문에서 찾을 수 없어 지나친 확장 해석이다. 5문단에서는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적 축적이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를 읽으며 글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접근 경험'이라고 하여 양적 축적보다 접근 경험을 중시한다고 했지, 양적 축적 '자체가 지니는 적극적 가치를 부정한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다른 하나의 명확하고 정확한 정답(3번)이 존재하므로 오답 처리한다.

2. 정답 ④

▶ 핵심 지문에서 제시한 개념(㉠~㉢) 간의 관계와 이들이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글쓴이의 논리에 맞게 연결하여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선택지는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가 ㉠(선행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문의 양립적 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구조적 패턴 인식이 ㉡(인지적 도식)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지문의 결론을 무리 없이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선행 지식)이 ㉢(범주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의 추적을 통해 ㉡(인지적 도식)의 편향을 보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잘못된 연결입니다. 지문에서는 ㉡이 텍스트 이해의 필수적인 틀로 긍정적으로 제시됩니다.
- ② × ㉡(인지적 도식)이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를 연결하여 전체적 가설을 구성하는 매개체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행 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가 제시한 자율적 규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서술은 지문의 논리와 다릅니다. 지문에서는 선행 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범주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는 텍스트 이해의 본질이자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 ③ × ㉢(범주 오류)가 ㉠(선행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개념 간 경계를 무시할 때 발생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 경험)보다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의 우선적 파악이 요청된다는 서술은 지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문에서는 ㉢와 ㉢를 우선순위로 비교하지 않고, 둘 다 텍스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요소로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④ ○ 정답입니다.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가 ㉠(선행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문 5문단의 '물론 이러한 반론이 선행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과 일치합니다. 또한 ㉢(접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구조적 패턴 인식이 ㉡(인지적 도식)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서술은 지문 5, 6문단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⑤ × ㉢(접근 경험)이 ㉠(선행 지식)의 양적 축적을 넘어 ㉡(인지적 도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경험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범주 오류)를 유발하는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의 기계적 적용을 제어한다는 서술은 지문과 모순됩니다. 지문에서 ㉢는 범주 오류를 유발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범주 오류를 방지하고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추적해야 할 핵심 요소로 제시됩니다.

3. 정답 ②

▶ 핵심 독자가 외부 지식에 의존하여 텍스트 내부의 재정의된 개념을 오독하는 상황이 지문에서 경고하는 '범주 오류(㉢)'와 '내부 논리(㉢) 추적 방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제시된 독해 상황의 핵심은 독자가 '갑'이 풍부한 사전 지식(선행 지식)에 의존하다가, 저자가 텍스트 내부에서 재정의한 개념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아 오독했다는 점입니다. 지문 3문단에서는 독자가 외부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할 경우 A개념의 속성을 B개념에 잘못 부여하는 '범주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갑'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속성을 텍스트에서 재정의된 '생산자의 한계 비용 곡선'으로서의 수요 곡선에 잘못 부여했으므로 ㉢에 해당합니다. 지문은 이처럼 인지적 도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 추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가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추론입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지문 6문단에 따르면 선행 지식(㉠)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내면의 체력으로 기능할 때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 역할을 전면 부정한다는 추론은 윗글의 논지에 어긋납니다.

- ② ○ '갑'이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개념의 속성을 잘못 부여한 것은 범주 오류(㉢)에 해당하며, 이는 인지적 도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 추적을 방해한 결과임을 지문 3, 4문단의 논리로 알 수 있습니다.
- ③ × 지문 5문단에 따르면 접근 경험(㉢)은 낮은 개념이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으며, ㉢ 예방의 핵심은 텍스트 내부 논리(㉢) 추적에 있으므로 과한 추론입니다.
- ④ × 지문 5문단에서 반론이 선행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과 ㉠이 양립할 수 없다는 추론은 윗글의 논지에 어긋납니다.
- ⑤ × '갑'은 경제학 지식이 풍부하여 인지적 도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의존한 상태입니다. 독해 실패의 원인을 ㉡의 결여로 본 것 자체가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4. 정답 ③

▶ 핵심 각 개념어가 지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4문단과 5문단에서 선행 지식(㉠)의 양적 축적보다 텍스트 내부의 논리(㉢)와 접근 경험(㉢)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윗글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선택지는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의 본질을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그물망을 추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문 4문단에서 "텍스트는 자체적인 자율성을 지니며, 그 안에서 개념들은 서로 일정한 위계와 관계를 맺으며 논리적 그물망을 형성한다"고 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한, ㉠(선행 지식)의 단순한 양적 축적보다 ㉢(접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 역시 지문 5문단의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적 축적이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를 읽으며 글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접근 경험"이라는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선택지 분석]

- ① × ㉠(선행 지식)이 ㉢(범주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에 의해 ㉠의 역할이 '전면 부정된다'는 내용은 지문과 모순됩니다. 지문 5문단에서는 반론이 선행 지식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 ㉡(인지적 도식)이 텍스트의 전체적 의미를 가설적으로 구성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은 맞지만, '㉠(선행 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라는 표현은 오류입니다. 지문 3문단에 따르면 범주 오류(㉢)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선행 지식, ㉠)'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하며, ㉢과 ㉠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한 선택지입니다.
- ③ ○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체계)가 텍스트 내부의 논리적 그물망을 추적하는 것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선행 지식)의 양적 축적보다 ㉢(접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문 4, 5문단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 ④ × ㉢(범주 오류)가 ㉠(선행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은 맞지만, ㉢(접근 경험)이 풍부한 독자가 ㉢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표현은 지문에 없는 과장된 내용입니다. 지문은 ㉢이 낮은 개념이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을 뿐, 오류를 원천 예방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 ⑤ × ㉢(접근 경험)이 특정 분야의 글이 지니는 구조적 패턴에 대한 익숙함을 의미한다는 점은 맞지만, ㉡(인지적 도식)과 달리 텍스트의 부분적 정보를 연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모순입니다. 지문 5문단에 따르면 ㉢을 통해 구조적 패턴에 익숙한 독자는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하는 부분적 정보 연결 작업에 간접적, 보조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학습 팁

- 1. 개념어가 여러 개 등장하는 지문에서는 각 개념어가 등장한 문단의 맥락을 정확히 기준으로 선택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면 부정', '원천적 예방'

등 과장된 절대적 표현이 들어간 선택지는 지문과 대조하여 오답을 걸러내는 연습을 하세요.

2. 개념 A와 개념 B의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두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개념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 지식(㉠)'과 '인지적 도식(㉡)'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지문의 정의 부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논증 구조를 파악할 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물론'과 같은 논리적 연결어에 주목하세요. 이 단어들은 필자의 관점이 전환되거나 제한되는 핵심 지점을 알려주며,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③	
--------	--------	--------	--------	--

총 4문항